

### 21세기와 역경

# 예산 확보-인력양성-용어통일

- 1.역경원의 어제와 오늘
- 2.역경원은 불교학의 견인차
- 3.디지털시대와 역경
- 4.역경사업 활성화 과제

역경원은 설립 이후부터 항상 재정적인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이는 곧 제작의 어려움으로 직결됐다. 역경원의 지난날을 돌아보면 국가의 지원이 없을 경우, 역경사업은 늘 난제에 부딪혔다. 현재 역경원이 개정작업 지원금을 신청해 놓고 있지만 아직 확답을 얻지 못한 상태다. 조계종은 이미 62년 역경을 중단 삼대 사업의 하나로 천명한 바 있지만 여전히 역경은 여타 종단 사업들에 밀려 뒷전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더 이상 말로만 중단 삼대사업이 되어서는 안된다. 조계종의 지원도 더 확대돼야 한다.

일부에서는 역경원이 공격적인 경영으로 이익을 창출해 내는 운영을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현재의 <한글대장경>은 일반인이 보기에는 너무 어렵고, 생소한 경전들도 많아서 대중적 인지도가 떨어진다. <금강경> <법구경> <법화경> 등과 같은 유명 경전을 읽기 쉽고, 휴대하기 쉬운 다양한 형태로 새롭게 만들어 대중들에게 다가가고, 그 이윤을 <한글대장경> 개정작업에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잘 팔릴 수 있는 책을 만들지 않고서, 수익성 없는 사업에 무조건 거액을 투자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또한 근본 대책은 아니다. 역경이라는 것은 시장 원리에 맡겨둘 성질이 아니기 때문이다. 역경 인력의 확충도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

현재까지 1백여명이 <한글대장경> 번역에 참가했으나 체계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지 못했다. 설립 초기에는 용주사 역장에서 교육을 받은 스님과 역경사들이 역경을 맡아왔으나, 중간에 호지부지되자 역경사업 역시 침체를 맞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94년 역경사업이 본격화되고서는 역경을 전담할 인력이 부족해 민족문화추진회, 세종대왕기념사업회, 국사편찬위원회 등의 번역자들과 한문학자들을 시역을 통해 총원

전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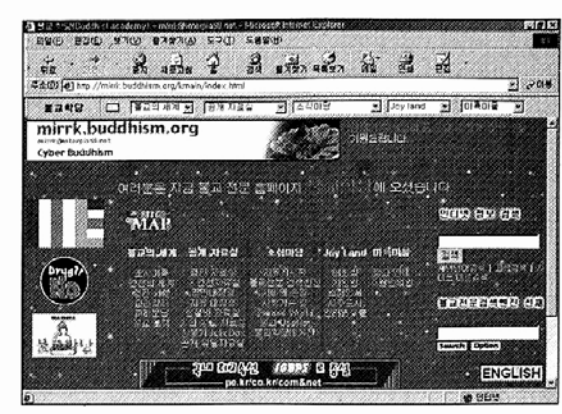
역경 용어 통일도 풀어야 할 과제다. 용어 통일 문제가 해결해야 개정작업도 원만히 할 수 있다. <한글대장경>내에서도 한문 원전의 용어가 구역이나 신역이나에 따라 다르게 해석된다. 실제로 갠지즈강의 경우 어느 경전에서는 '항하'로 음역하는가 하면, 또 다른 경전에서는 '갠지즈강'이라는 인도 현지음으로 번역되고 있다. 이처럼 <한글대장경>내에 역사적 시대만 다르게, 내용적으로는 동일한 부분들이 서로 다르게 해석되고 있는 것들은 표준화가 되어야 마땅하다. 이같은 용어의 통일도 결국 <한글대장경>을 모본으로 실시될 영역화 작업과 전자화의 작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원인이 될 것이다.

역경사업은 더 이상 역경원만의 일이 아니라 범불교적인 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역경사업의 주체라는 인식을 풀어 나갈 것인가. 위에 열거한 활성화 방안은 이전에 도 수차례 논의돼 왔던 것이다. 이들을 그 지과제로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역경사업의 주체라는 인식을 통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2000년대에 역경사업은 여전히 대형 건물 불사의 뒷전으로 밀려나기 십해 면치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 한글대장경 개정 '오늘의 언어로' 도서관용서 탈피 누구나 읽도록

했다. 또 각 장권별 짧은 화자들을 역경위원으로 위촉해 번역내규를 정하는 수준에서 번역을 맡겼는데, 이는 많은 문제를 야기했다. 역경이라는 것이 한문만 많이 안다고 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또 부분적인 불교이해로 해결되는 단순한 일이 아니어서 곳곳에서 오역 문제 등이 발생한 것이다.

이같은 인력난이 도움을 줄 중앙승가대학 불전국역연구원이 93년 설립되었지만 역경원의 역경사업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인제가 없어서 역경사업이 차질을 빚는 것이 아니라 역경사업에 필요한 자질을 갖춘 인재들이 매년 배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역경사업에



### 부도피아 사이버 기행 불교학당

## 교리강좌·문화재 정보등 제공 온라인 공부방 개설...토론장도

불교와 사회, 불교와 문화 등 불교를 이해하는 데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는 국내 불교 관련 사이트를 꼽자면 단연 '부도피아'이다. 21세기를 선도하는 불교 전문사이트를 표방한 이 사이트는 98년 12월 개설된 이래 수만명이 다녀갔을 정도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부도피아는 서비스의 양적 수준에서 다른 불교 관련 사이트와 차별화된다. 다른 사이트들이 단편적이거나 특정 분야에 치우친 내용을 담고 있는데 비해, 부도피아는 적절보급, 이달의 법문, 경전의 세계, 자유게시판, 기초교리, 교리·신행문답, 불교 관련 링크, 불교 관련 자료실, 불교 신간 안내, 메일링 리스트, 문화 센터, 쇼핑물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진리의 말씀에서는 하이테크 기술을 이용해 온라인 상에서 중계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배울 수 있도록 했으며, ▲불교 관련 자료실에서는 각종 경전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불교 관련 링크에서는 추천 불교사이트, 불교 단체 및 기관, 각 사찰 홈페이지, 불교 행사 및 대회, 불교 관련 개인 홈페이지, 불교문화 및 불교 관련 사이트 등 분야별로 각종 불교 관련 사이트들을 링크시켰으며, ▲불교 문화센터에서는 문학, 음악, 미술 등 장르별로 각종 자료를 등록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에는 ▲부도피아 사이버 기행 포교당인 불교학당의 소식뿐

▲부도피아 사이버 기행 포교당인 불교학당의 소식뿐

## "주희 공부론 체계완성 불교·도교의 영향 컸다"

### 김미영씨 '주희의 불교관...'서 주장

대표적인 유학자인 주희의 공부론(工夫論) 체계 완성 불교수행론의 유학화다.

김미영씨(고려대 강사)는 11일 열린 한국종교학회 불교분과 월례 발표회에서 '주희의 불교관에 나타난 유불수행론의 경계'를 통해 "유교의 수행론인 공부론이 이론적 체계를 갖추어 가는 과정에서 불교의 수행론을 차용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발표문에서 불교중심사회에서 유학사회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형성된 사상계의 풍토는 유불상호간의 교섭을 통한 상호전환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고, 주희를 통해서 숭대 이후 유학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불교를 넘어서 자신의 이론을 구축하게 되었는가를 살폈다.

김씨는 당시 지식인들에게 불교의 대표적인 이론이라고 인식됐던 공론과 견성론에 대한 주희의 입장을 고찰하고, 주희의 공부론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격물공부(格物工夫)는 바로 실(實)로서 이(理)를 강조하는 전제에서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철저히 현세간 중심이던 유학은 현세간에서의 행위 또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옳고 그름을 가리고 옳은 것을 배양하고 사된 것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수행의 방향을 체계화시켰으며, 그 옳고 그름의 잣대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론적 근원이 이(理)라고 밝혔다. 또한 공론과 견성론에 대한 비판은 주희가 불교비판을 통해서 수립하게 된 공부론의 성격 내지는 이론적인 틀을 형성하는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이루어진 사상적인 성과는 기존의 다른 사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라했던 유학의 수행론인 공부론 측면의 체계화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이다.

김씨는 "결국 불교나 도교에 비해 수행이론이 미약했던 유가가 명칭대에 주도적인 위치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유학자들이 당대 유행했던 불교나 도교의 수행체계를 흡수하여 자신의 이론에 맞게 재구성한 결과"라면서 "수행체계에서 방법론상의 유사성은 많으나 독자성도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 불교학술단체 월례발표회 잇달아

봄을 맞아 각 학술단체들이 월례발표회를 재개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매월 새로운 주제로 전문분야의 연구자를 선별해 진행하는 형식의 월례발표회는 최근 1~2년 들어 학술단체들의 새로운 학회운영방향으로 정착되고 있다. 월례발표회에는 전문연구자나 소장학자뿐 아니라 해당분야의 학문에 관심있는 일반인들도 참가할 수 있어, 기존의 학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도 되고 있다.

한국선학회는 18일 오후 1시 30분 동국대 학술문화회관 예술극장에서 제1회 월례발표회를 연다. '북미주 학회와 선불교 연구현황'과 '수선사의 현실 참여와 간화선'에 대해 논의한다.(02)2260-3135

한민족운동사연구회 월례발표회는 18일 오후 2시 대우재단 빌딩 3층 강연실에서 진행된다. 제1주제 '1910년대 30년산연사사무소의 설립과 변화', 제2주제 '1930년대 조선불교계의 심정개발운동', 제3주제 '광복군의 OSS활동' 등이 발표된다.(02)780-3158

보조사상연구원은 26차 월례발표회를 25일 오후 2시30분 법륜사 불일회관에서 연다. '보조지눌과 동학의 사상체계 비교연구'에 대해 정정정박사(동국대 교육학)가 발표하고, 이덕진박사(고려대 철학)가 논평한다.(02)733-5335

한편 한국종교학회 불교분과는 11일 오후 2시 서울대학교 인문관 8층 대강의실에서 제8차 월례발표회를 가졌다.

### 학술단신

#### 교수불자들 논집 출간

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이준)가 교불론 논집 제7집 <21세기 한국 불교의 과제와 전망>을 발간했다.

이번 논집에는 '20세기 종언과 21세기 시작을 위한 불교의 역할' '21세기 한국불교의 좌표' '한국불교 정보화과정' 등 총 17편의 논문이 수록돼 있다.

법륜불자교수학회(회장 신준식)도 <불교와 학문의 만남>을 펴냈다. 총 3



부로 구성된 이 책은 회원들의 논문 18편과 고승대덕의 법문 11편, 회원들의 수행 에세이 6편 등 총 35편의 글이 수록되어 있다.

#### 학술연구비 지원 공모

성철선사상연구원은 '연구 논문 지원'과 '운동회 지원'의 두 분야에 걸쳐 학술연구비를 지원한다. 연구 논문지원분야는 선불교와 그 관련 분야로, 새로운 연구 방법을 도입할 참신한 내용으로 불교학의 지평을 연 논문이어야 한다. 각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자 이상, 지방승가대학 강사이상 지원 가능하다. 운동회 지원은 선어록 및 불교학 관계 원전 50명 이상으로 구성된 운동회가 대상이다. (02)744-1542

## 몸을 다스리는(治身) 자/연/건/강/식/품

몸이 없으면 사람 아닌 귀신(神)이고 몸이 있으면 사람이다. 사람의 몸은 부모로부터 받아 태어났으므로 사람의 근본이 부모가 된다. 그러므로 효(孝)가 백행(百行)의 근본, 천하의 대본(大本)이 되며, 효, 그 다음에 충성, 의리, 신의가 된다. 몸이 음식을 먹고 소화와 배설을 잘하는 것이 바로 몸을 잘 다스리는 것(治身)이다. 몸을 잘 다스리면 피로도 없고 병도 없으니 신전대사가 원활하여 몸이 건강해진다. 몸을 다스리는 치신(治身)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治世)과 똑같다. 몸이 있어야 수신(修身)·몸을 닦는 것(道)을 할 수 있고 수신을 잘하여 도(道)를 깨달은 분이 성인(聖人)이니 성인이라야 제가(齊家)·집을 다스림, 치국(治國)·나라를 다스림, 평천하(平天下)·세상을 평화롭게 함)를 할 수 있다.

성인이 되어야 오복(五福) [첫째 수(壽)·건강과 장수]·둘째 부(富)·부와 귀·셋째 장녕(康寧)·편안함·넷째 후유덕(攸好德)·덕을 좋아함·다섯째 고종명(考終命)·잘 죽음]을 다 이룬다. 사람은 잘 살고 죽어야 하기 때문에 오복의 첫째가 건강하게 오래 잘 사는 수(壽)가 되고 마지막이 편안하게 잘 죽는 고종명(考終命)이 된다. 그러므로 사람은 몸을 잘 치신(治身)하여 몸을 잘 닦아 도(道)를 깨닫지 않으면 안된다. 세상 사람이 모두 좋아하는 권력, 재산, 명예, 무병장수를 얻으려면 질이 좋은 자연건강종합식품을 먹고 몸을 잘 다스려 몸을 잘 닦아서 도를 깨달아야 한다.

「불로화정(不老化精)」·「술소소정액(松蘇素精液)」·「술선식(松仙食)」 등 「치신(治身)자연건강종합식품」은 삼신산(三神山) 중 방장산(方丈山)인 지리산에 있는 본사 식품제조공장에서 만든 것이다.

## 불로화정(不老化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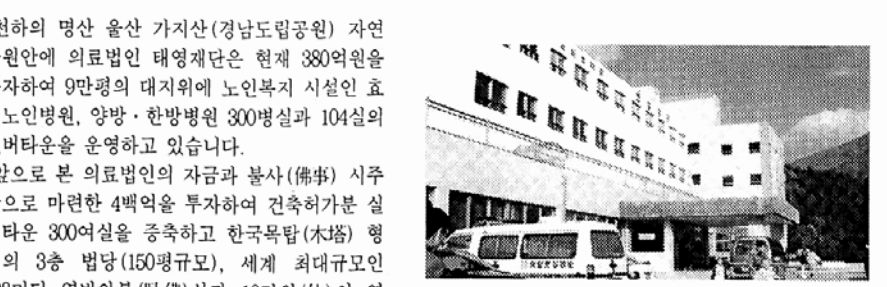
산중 사찰의 스님을 위한 건강식품인 「불로화정」은 시연스님이 40여년전 은사 큰 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비법으로 흑염자(검은 까)와 감식초 외 10여종의 첨가물 [전부 우리 농산물]을 3년간 발효시켜 만든 것이다.

「불로화정」은 노소(老少), 체질에 상관없이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여 체질을 개선함으로써 건강이 호전되어 노화가 억제되며 위염·소화불량·설사 등 위장질환이 치료되며 2개월만 복용해도 다이어트 없이 배변이 쉬어지고 비만이 안되고 복부의 주름살이 퍼지며 다량의 음주에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고 피로를 모르는 건강을 만들어 준다.

가정 70만원(2개월분)을 회원에 가입하신 분에게 50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 구입문의 : (053)655-2227 (011)808-8880
- 입금구좌 : 대구은행 161-07-412768-001
- 예금주 : 대구여래원

## 효성양방 · 한방병원 무료치료안내



### ▲ 효성양방 · 한방병원 부분전경

정신병, 신경성 질환, 당뇨병, 중풍(외사풍 포함), 관절염, 위장병, 치매 등을 앓고 있는 노인분들이 완치될 때까지 무료로 치료해(약 1개월안에 치료 가능, 입원실 사용, 식대 각자 부담) 드리고자 하오니, 전국의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의 료 인 효성양방 한방병원 이사장 김시연

(이사장 직통) 대구 ☎ (053)655-2227 (011)808-8880 병원비서실 ☎ (052)254-2600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북면 덕천리 산 8-4

- ◆ 모든 질병과 성인병은 의뢰만 잘 풀어버리면 완벽한 치료가 가능합니다.
- ◇ 스님들 주변에 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치료의 인연을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 불로화정 본포